

# “방학 중 ‘돌봄교실’도 급식 제공을”

## 광주 초등 학부모·시민단체 ‘도시락 지참 부담’ 대책 마련 촉구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겨울 방학동안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의 점심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47개교가 돌봄교실을 운영, 초등생 6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주로 초등 1-2년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방학 중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지만, 맞벌이 입장에서 출근 시간에 학생의 도시락을 싸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육 스트레스이자 고통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돌봄교실 참여 146개교 가운데 44개교만

이 매식(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으며, 102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학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싸도록 요구하고 있었다”며 “방학 중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돼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방학의 경우 매식과 도시락지참 중 선택권을 보장해준 5개교도 존재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마저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방학 동안 도시락을 준비하

느라 어려움이 크지만 ‘도시락 싸는 것조차 귀찮아 하는 이기적인 부모’로 비춰질까봐 학교에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방학 중 급식이 안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것은 사실상 애 키우려면 직장 다니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학교 입장에서 행정책적으로 번거롭겠지만 우리 사회의 난제인 아이낳기와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해 서라도 학교가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 부모들은 점심 시간에 외출해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패스트푸드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모임은 돌봄교실 학생들의 점심을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농부 등과 연계해 지역 로컬푸드로 해결할 경우 거제시의 사례를 들며, 광주도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에 적극 귀기울여 주길 요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곧 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 상자가 가득 쌓여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6년 연속 성과평가 최고 등급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성과평가에서 호남·제주권 대학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동신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1년 대학일자리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동신대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와 체계

적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년DS버스,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취업특강과 면접 컨설팅 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코로나 19 상황에서 직무자격증 과정과 AI면접 지원, 취업캠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들의 올바른 진로설정과 취업역량 강

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로 동신대는 호남과 제주권 대학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우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6년(5+1) 동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진행한 동신대는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 올해부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해남 출신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임명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윤준(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인사 21면>

신임 윤 준 광주고법원장은 해남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고법원장의 부친은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제 12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윤관(고시10회) 변호사이다. 윤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93년 재산공개당시 동료 대법관 중 가장 낮은 5억3000만원을 신고, 청렴법관의 표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재임시절 영장실질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개혁에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로 자리를 옮겼다. 전주지법원장은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로 정해졌다. 광주고법 수석판사에는 김성주(26기)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김승희 제31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김승희(54·사진) 제 31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24일 취임했다.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김승희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서울대 정치학과, 행정대학원 정책학과(석사)를 졸업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물공존의 통합 물관리 성과 창출, 함께 누리는 환경서비스 공간 확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배출허용 총량 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며, 생태보전과 맞춤형 관리로 자연·생태서비스 기반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청장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기환경정책관 등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국 1호’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 여가부와 협약...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 영예 유지

광주 동구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전국 1호 도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3단계 지정 협약을 개최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를 운영해 온 이래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은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로써 동구는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의 영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동구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2012-2016), 2단계(2017-2021) 인증을 거쳐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며 각종 분석과 평가를 거쳐 최종 3단계 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행복으로 다 함께 피어나는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

##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시교육감 출사표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강 전 총장은 2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학교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한 무등산과 같은 마음으로 기본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이어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면 인성을 갖추고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기초학력이 떨어져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기초학력을 올리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총장은 이를 위해 6대 디자인(D·E·S·I·G·N) 교육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총장이 제시한 6대 디자인은 ▲디지털 문해력으로 꿈을 이루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 구축 ▲공감으로 상생하는 환경 구축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콘텐츠화할 수 있는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광주의 역사를 통찰해 혁신 추진 ▲녹색 공간 확충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협업과 연대 강화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http://www.namwonlove.co.kr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

# 설

## 맛있는 지리산 청정 남원 농특산물